

<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구조조정 방향을 명확히 하라!

99년 정초부터 석유화학 구조조정 방향을 놓고 설왕설래가 분분하다. 98년 초부터 시작된 재벌 구조조정을 놓고 온 경제계와 산업계가 뒤흔들렸던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은 그 필요성 면에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상태이다. 80년대 말부터 지속돼온 과잉투자와 재벌들의 힘겨루기가 산업부실을 넘어 국가경제를 뒤흔들만한 정도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IMF 환란을 초래한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방법 및 방향을 놓고서는 어느 누구도 수긍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음은 물론, 특혜와 편파의 시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비는 재벌들의 무사안일한 대처와 부실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잘못된 사고에 연유한 바 크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가 「Big Deal」이라는 큰 틀에 지나치게 매달려 있고, 지금까지도 「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조조정 방향 설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해도 잘못된 지적은 아닐 것이다.

첫째,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구조조정안은 5대 재벌의 7개부문 구조조정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산업적 특성을 100% 고려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이 실질적으로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외자유치라는 것도 공식적인 발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실현성이 매우 의문시되고 있다.

현대&삼성의 대산석유화학 합병시 경영권이나 지분율과는 상관없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하지 않았으며, 외국자본 유치도 상대방의 전략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둘렀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금융권 구조조정위원회가 추후 현대&삼성의 구조조정방안을 거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삼성의 통합은 빅딜 원칙아래 지금도 추진되고 있고, 외자유치를 구실로 부실부채의 출자전환, 우대금리 적용, 각종 세금감면,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차후 불공정성과 특혜의혹을 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계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지적과 함께 건설경영의 불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아가 청문회를 들먹일 정도이다. 타 단지의 구조조정시에도 비슷한 특혜를 들고나올 것은 불문가지이다.

둘째, 산자부가 98년말 제기했던 여천단지 구조조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특성과 흐름을 깰그리 무시한 「졸작」이라 표현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이다. 한 회사 내에서도 원료 공급부서와 사용부서간에 공급가격을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기준가격을 정하기도 매우 난해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품목별 전문화를 꾀한다는 명분아래 업과 다운을 분리해 전문화시키겠다고 나선 것은 합성수지의 생산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잘못된 이해에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합성수지 생산규모가 마케팅력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나, 원료가격이 근본요소임은 상식이 아니던가?

산업적 이해가 부족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할 것이고, 산업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건인 것이다. 타당성이 결여된 정책을 수용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관료적 권위주의에 불과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산자부가 겉으로는 민간자율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구조조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함은 물론 비밀스런 모임을 주선해 구조조정 방향을 주지시키고, 나아가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다는 푸념마저 들리고 있다.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타당성이 결여돼서는 아니되고, 또 민간자율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1999/1/25>